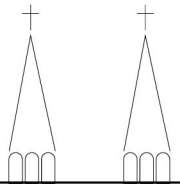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 Relentless Hope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2:5)



강사 김하나 목사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
(시 42:1-5)

소망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난다

끈질긴 소망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정리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끈질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때로는 큰소리로, 때로는 조용히 찬송합니다. 어둠은 성경에서 환난의 상징이며, 죄악과 세상의 상징입니다.

애 3:6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요일 2:11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 어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 45: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난이 우리의 불행과 죄악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에도 두게 하십니다. 광야는 오직 고생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가장 가깝게 계셨던 곳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곳(시내산)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광야에서 어려움만 보았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만 보는 것은 소망의 자세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 교수는 그의 책 〈넛지 전도〉(Nudge :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에서 어둠이 빛을 더욱 분명히 보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별을 잘 볼 수 있는 몇 곳이 있습니다. 모두 깊은 시골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빛이 없기 때문에 별을 자세히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한밤중에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우주가 펼쳐집니다. 아프리카는 공기의 오염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오염도 없습니다. 광공해(light pollution)라는 용어가 있는데 빛도 공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빛이 많으면 오히려 정말 봐야 하는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에서는 별을 보기가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다른 빛(광공해)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두려워서 정신없이 불을 찾아 켜기 시작합니다. 전등을 켜고, 촛불을 켜고, 사람의 불을, 재물의 불을, 여행의 불을 켜고, 소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켜는 등불의 조도는 너무 낮고, 다른 불빛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다른 등불을 일부러 끄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자꾸 다른 불빛만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참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 다른 빛의 근원을 성령의 바람으로 꺼뜨리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으로 데려가신다면 그 손을 끈질기게 꼭 붙잡아야 합니다. 더욱 참 빛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그곳에서 더욱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또 다른 요소는 성장입니다. 성장은 잠잘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잠을 푹 잘 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밤중에, 어둠 속에서, 캄캄한 곳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젓갈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큰 시장에 가면 젓갈 파는 곳에서 밥솥에 밥을 잔뜩 해서 먹도록 해놓은 것을 기억합니다. 시큼하면서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젓갈은 밥도둑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젓갈은 토굴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깜깜한 어둠 속에서 숙성되고 잘 익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숙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소망하는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소망과 인내

'끈질기다'라는 말은 지속적이고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끈질기다'라고 하면 박지성 선수같이 끊임없이 뛰고, 포기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정말로 끈질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끈질김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끈질김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끈질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롬 8:37-39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한 인간을 향한 끈질긴 인내와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 안에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배반하고 도망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고멜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오게 하시는 본을 통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호 14:4-5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신약에도 끈질긴 하나님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떠나가 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쩌다보면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애타게 끈질기게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바로 자녀를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끈질기게 소망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끈질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눅 15:18-20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끈질김의 모습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나서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끈질기게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입을 벌리고 감나무 아래 누워 있는 사람을 가리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도, 아무리 오랫동안 버티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끈질긴 소망이 결코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끈질긴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끈질긴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눅 18: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위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두드리고, 찾고,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롬 12: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전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끈질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끈질기게 기뻐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며, 끈질긴 소망은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이런 끈질긴 인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끈질긴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끈질기게 붙잡아야 하고 또한 지켜야 합니다.

살전 1:2-3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기억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소망을 가리켜 소망의 인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동력이 없는 풍선과도 같아서 그저 이리저리로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바람마저 빠져버려서 땅으로 떨어져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월 특별새벽집회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소망 없는 이 시대에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의 소망을,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끈질김의 은혜까지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롬 8:24-25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명성교회